

동우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제264호 |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발행인 김재호 | 편집위원 홍정수(편집국) 임보미(편집국) 조윤경(미래전략연구소)
이원탁(AD본부) 손수영(마케팅본부) 신강혁(문화사업본부) 이진걸(경영지원국)
남형주(재경국) 최화정(편성전략본부) 조동원(콘텐츠플랫폼센터)
유정균(전략기획본부) 김혜성(콘텐츠사업본부) 박동엽(경영지원본부)
박세연(동아E&D) 한결(채널A비앤씨) (편제순)
제작 경영총괄팀(구내 0879)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가 동아미디어센터



장기근속자 귀하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강은아	김건영	김건준	김군래	김덕룡	김민석	김민지	김설혜	김성진	김순겸	김영섭	김우준	김윤수
김의태	김진	김태욱	김현익	김현승	김혜령	남하나	노대현	노용현	박동엽	박세진	박소윤	박영래
박재덕	배민	배한수	배해림	손동열	송병수	송찬욱	신정호	윤승욱	윤영섭	윤정화	이광훈	이기현
이상민	이상연	이용환	이원재	이진민	이현	이현수	이희현	임도현	임수정	장기영	장시원	장치혁
전진영	정경준	정승환	정희욱	조성우	조천우	조현선	천상철	천준석	최윤석	하임숙	한정연	황승택

10th Anniversary

12월 1일 오전 10시반 동아미디어센터 광화문 사옥 1층. 새롭게 문을 연 '오픈 스튜디오'에서 채널A 구성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날은 채널A의 10번째 생일파티가 열리는 날.

이날 처음 공개된 오픈스튜디오에는 높은 천장에서 환한 조명이 쏟아졌고 한쪽 벽면 전체를 따라 대형 미디어월이 펼쳐져 있었다. 화면 속에서 10주년 고깔모자를 쓴 채 환히 웃는 스마일을 광화문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이 통유리창을 통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함께한 10년 '추억이 방울방울'

11시부터 시작된 채널A 개국 10주년 기념식은 채널A 대표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축하영상으로 문을 열었다. '도시어부', '금쪽같은 내새끼', '강철부대', '이제 만나러 갑니다' 등 인기 프로그램의 출연진과 패널들이 채널A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10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되돌아 본 채널A의 10년 영상이 펼쳐졌다. 코로나19로 모든 사원이 스튜디오에 함께할 수 없었던 만큼, 기념식의 모든 과정은 사내 방송을 통해 각 층에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지난 10년 간 채널A를 함께 키운 65명의 장기근속자 명단도 발표됐다. 대표로 소감을 전한 보도본부 김윤수 기자는 "채널A에, '날' 품은 지 10년, '예'둘러 말하지 않겠다. '이'제 내 미래를 걸겠다"라는 4행시를 읊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김재호 사장은 장기 근속자 전원에게 전달될 금반지를 김 기자에게 대표로 직접 건넸다.

근속자 포상에 이어 가장 최근에 회사

채널A 10주년,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12월 1일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오픈스튜디오에서 개국 10주년 기념식 성황리 개최



새로 단장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열린 채널A 개국 10주년 기념식

에 입사한 2020년 입사자들의 재기발랄한 화답도 이어졌다. 경영전략실 1theC 스쿼드 김상하 CD는 "우리 회사의 장점은 '안정성'이라던데, 저는 이와 정반대인 '도전성' 때문에 채널A에 입사하고 싶었다"는 당돌한 메시지를 전했다.

"탁월한 콘텐츠로 성장을 넘어 진화해야"
김재호 사장은 이날 10주년 개국 기념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채널A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했다. 김재호 사장은 "이제 채널A는 성장을 넘어 진화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탁월한

콘텐츠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상상력을 넓히는 크리에이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널A의 유의미한 흑자가 예상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동아미디어그룹의 구성원들을 위한 보상구조 강화도 약속했다.



채널A 10주년을 축하 중인 김재호 사장

김재호 사장은 "능력과 성과에 바탕을 두고 함께 일한 가치와 열정에 걸맞는 보상 구조를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연봉 인상, 연말 성과급 지급 원칙, 경력 발전제도 도입, 연수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등 굵직한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해 사내외에 큰 화제를 낳았다.

그룹 전 직원에 채널A 10주년 기념선물

한편 이날 동아미디어그룹 소속 전 직원들은 채널A 10주년 기념선물을 받았다. 선물은 무한한 콘텐츠의 우주를 향해 비행에 나선 '스마일어 앤 갤럭시' 우주왕복선의 에메니티를 컨셉으로 제작됐다. 여행을 위한 고급 레드백 안에는 담요와 목베개, 안대를 비롯해 편카드, 스티커, 비누, 크림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아이템이 담겼다.

광화문 및 삼양동 사옥 구성원들은 이날 1층에 마련된 포토월 앞에서 팀별, 동기별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김유빈



채널A 동아일보 보상체계 대대적 개편

사원 경력관리와 개인브랜딩 강화할 제도도 곧 도입

채널A의 2011년 이후 입사자, 동아일보의 2010년 이후 입사자들 기본연봉이 12월부터 인상된다. 채널A와 동아일보는 이익이 발생한 해 연말에 '전사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금을 크게 늘리고, 연수제도는 더욱 개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개국 10주년을 맞은 채널A와 창간 101주년을 맞은 동아일보는 1일 직원들의 성과와 가치에 걸맞는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1단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이날 열린 채널A 개국 1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일에 대한 가치가 존중받고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확실히 자리 잡아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상체계 대대적 업그레이드

먼저 채널A는 12월 1일부터 2011년 이후 입사한 사원의 기본연봉을 500만~800만 원 인상한다. 정규 전환 사원, 행정지원-편성운행 사원도 기본연봉을 180만~720만 원 올린다. 아울러 취재비 지급 방식은 일반 산정 방식에서 월정액 방식으로 바뀐다.

동아일보도 2010년 이후 입사한 사원들의 기본 연봉을 올린다. 인상액은 150만~400만 원이다. 같은 연차에 같은 인상액을 적용한다. 편집국 제작지원부서 및

각 국실본부 경영직 사원의 기본연봉도 100만~240만 원 올린다. 채널A와 동아일보의 기본연봉 인상 대상에는 11월 수습 입사자도 포함된다.

이번 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은 전사성과급 지급 계획을 밝힌 점이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이익이 발생한 해에 전사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규모는 영업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당기순이익 등 그 해의 경영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당장 올해에는 12월 27일에 지급하며, 모든 사원에게 똑같이 지급하되 우수성과자와 직책자에게 추가로 보상을 해줄 예정이다. 전사성과급 외에도 '특별성과급'을 도입해 성과를 낸 개인 또는 조직에 지급하기로 했다. 일부 제작, 영업부서에 국한됐던 특별성과급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는 취지다.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우수 성과 표창에 따른 포상금액도 대폭 늘린다. 단체상 기준 특종상은 100만~500만 원에서 300만~1000만 원으로 오른다. 우수상은 80만~150만 원에서 200만~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의 사내대출 한도는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추가 출연을 할 방침이다. 채널A는 2022년 중 사내대출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채널A 동아일보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채널A 보상강화	- 2011년 이후 입사자 기본연봉 500만~800만 원 인상 - 정규전환 사원, 행정지원 편성운행 사원 기본연봉 180만~720만 원 인상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진행, 사내대출제도 도입
동아일보 보상강화	- 2010년 이후 입사자 기본연봉 150만~400만 원 인상 - 편집국 제작지원부서 및 경영직 사원 기본연봉 100만~240만 원 인상 - 사내대출 한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
채널A 동아일보 공통	- 이익 발생한 해 전사성과급 지급 (영업이익 20% 이내) - 특별성과급 도입. 매출, 공헌이익, 비용절감 등 재무적 기여도나 콘텐츠 영향력 확대, 대외 수상에 따른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요소를 검토해 개인 또는 조직에게 지급 - 우수 성과 표창 활성화 및 포상금액 대폭 증액(특종상 1000만 원) - DNA 프린티어, 근속연수 3년 이상 사원에게 확대 - 직무수당 연야수당, 데스크활동비 등 추후 추가 조정
경력관리 지원	- 커리어패스 관리 및 커리어플랜 관리 프로그램 도입 - HR 리더 제도 도입
개인브랜딩 지원	- 브랜드화 매니징 프로세스와 인센티브 도입
효율적 협업 지원	- 부서별 본부 협업가이드라인 제정

연수제도인 'DNA 프린티어'도 전면 개편된다.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춰 근속연수 3년 이상의 사원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연수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해 최대 1년 이내에서 국내외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공지는 12월 중 지니에 게시될 예정이며 2022년 1월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새롭게 개편된 제도에 따른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동아미디어그룹은 이같은 개편안들에 더해 2단계 개선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2단계안은 이번 1단계 시행에서 제외된 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각종 수당을 조

정하며, 취재비 통신비 인상도 추진한다. 2단계 개선방안은 이르면 2022년 3월 연봉조정 및 계약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브랜딩 적극 지원

이와 함께 채널A와 동아일보는 사원들의 '경력 개발'과 '개인 브랜딩'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사원들이 본인의 커리어패스를 돌아보고, 본인의 역량과 전문성, 목표, 관심사를 바탕으로 커리어플랜을 세우는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각 실국본부센터의 간부급 사원이 'HR리더'로 지정돼 사원들의 커리어 관리를 체계적으로

돕게 된다. 부서별 본부별 협업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그룹의 협업 역량도 높인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업무 방식이 정착되고 본부별 아이덴티티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원들의 개성과 역량을 극대화해 브랜딩화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이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고 참여를 독려할 인센티브도 도입될 예정이다. 사원들의 개인브랜딩 향상이 곧 동아미디어그룹의 브랜드 강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김준일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 2기, 관훈언론상 수상 및 한국디지털저널리즘어워드 대상



왼쪽부터 뉴스이노베이션팀 위은지 기자, 이샘을 팀장, 히어로콘텐츠 2기 감독인 김은지, 임우선 팀장, 김은지, 이윤태 기자

지난 2월 <환생: 삶을 나눈 사람들(이하 환생)> 시리즈를 보도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 2기(팀장 임우선 팀원 감독 김은지 이윤태 이샘을)가 권위 있는 언론상을 잇달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관훈클럽은 <환생> 시리즈를 2021년 관훈언론상 저널리즘 혁신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12월 2일 밝혔다. 관훈클럽은 "취재팀은 한국 언론 최초로 100일간 장기 기증의 전 과정을 심층 취재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했고, 신문 보도와 별도로 탐사보도 플랫폼을 만들어 온라인에 다양한 영상과 사진, 그래픽을 선보였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환생> 시리즈는 앞서 11월 24일 제10회

한국디지털저널리즘 어워드 대상을 받았다. 심도 있는 주제 의식, 다채로운 화면 구성과 스토리텔링의 차별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히어로콘텐츠 2기는 9월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수상한 바 있다.

<환생>을 포함한 역대 히어로콘텐츠팀 보도작을 담은 동아일보의 멀티미디어 뉴스 플랫폼 '디 오리지널'도 한국디지털저널리즘 어워드 이노베이션저널리즘상을 수상해 겹경사를 누렸다. 디 오리지널은 역대 히어로콘텐츠팀 결과물을 담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취재기자, 디자이너, 개발자, 기획자들의 협업 콘텐츠가 실려있다. 콘텐츠 실험과 구성, 품질 관리, 제작 과정 해설, 미디어 브랜드의 확장 가능성 등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동아사이언스 데일리뉴스팀, 올해의 의과학취재상



동아사이언스 데일리뉴스팀(김민수, 고재원 기자)이 11월 26일 '2021년 올해의 의과학취재상(의학부문-한국과학기자협회 선정)'을 수상했다. 동아사이언스팀은 <코로나 시대 혐오 시리즈> 연속 보도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오 현상을 추적했다.

동아일보 학봉상 언론보도부문 대상

동아일보가 일본 아사히신문과 지난해 10월 공동보도한 기획기사 <내가 기억하는 한국-일본>으로 12월 1일 제6회 학봉상 언론보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두 신문사는 악화하는 한일 관계 속에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양국 교류에 기여한 인물들을 인터뷰해 함께 소개했다. 학봉상은 재일동포 기업가였던 학봉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든 상으로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 장학회가 후원한다.

이정희 팀장 한국어문상 신문상



이정희 동아일보 머문 연구팀장이 한국어문기자협회 주관하는 한국어문상 신문상 수상자로 12월 1일 선정됐다. 신문-방송 언어의 발전과 국어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이 상은 우리 말과 글의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이기홍 대기자 연세언론인상



연세언론인회는 '2021년 연세언론인상' 수상자로 이기홍 동아일보 대기자를 선정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기홍 대기자는 동아일보에 기명칼럼을 연재하며 세상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통찰력 있게 밝혀줬다는 평을 받았다.



국내 유일 플래티넘 라벨 서울마라톤, 코로나19 이후 국내 첫 오프라인 대회 성료

국제 엘리트 부문은 마라톤 성지 케냐 캅사벳에서 열려

러너들이 서울 도로를 달리는 장면을 다시 보는 것은 감동 그 자체였다. 11월 28일 코로나19가 발생한지 약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재개된 서울마라톤대회가 그 감동의 현장이었다.

서울마라톤은 91년 역사를 맞은 동아마라톤이자 플래티넘 라벨을 가진 세계 7대 마라톤 중 하나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가 지우기만도 수차례였다. 대회 일자마저 확정할 수 없었던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10월 중순부터 워드코로나 전망이 나오자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경찰청을 설득해 신속히 협조를 이끌어냈다. 해외 입국자 출입이 제한된 점이 마지막 걸림돌이었지만 국제육상연맹, 케냐육상연맹과 심야 통화를 이어가며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서울과 케냐의 이원 대회를 성사시켰다. 해외 마라톤러 대부분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비(非)시즌 동안 훈련캠프를 차린다는 데 착안한 아이디어였다. 케냐의 마라톤 훈련 성지인 캅사벳에서 뉴욕마라톤 우승자와 도쿄올림픽 우승자 등 38명의 유명 해외 선수가 현지 대회에 참가했다.

국내에서는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대회 관계자 포함 499명으로 제한된 인원내 맞춰 풀코스, 10km 코스 참가자를 선발했다. 국내 엘리트 선수 50여 명과 서울마라톤 온라인 부문에 신청한 마스터



(왼쪽 사진)2021 서울마라톤 겸 제91회 동아마라톤 참가 선수들이 11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출발 지점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다. (오른쪽 사진) 마라톤 훈련의 성지인 케냐 캅사벳에서 열린 2021 서울마라톤 엘리트 국제부에 출전한 엘리트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 1만 명 중 풀코스 3시간 30분 이내 완주 가능한 참가자 100명, 10km코스를 60분 이내 완주 가능한 참가자 200명을 추첨으로 선발했다. 무엇보다 대회 당시 4000명에 육박하는 일일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방역이 최대 과제였다. 참가자 및 관계자 모두 2차 백신접종 완료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완료 2가지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다.

다시 뛸 수 있다는 열띤 기대로 참가자 추첨 당시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당락 여

부에 따라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댓글이 달렸다. 황제 마라톤이라 불릴 만큼 넓고 쾌적한 도로 코스를 달린 참가자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최고의 희열을 느꼈다"고 말했다. 출발지와 결승선, 도로에 나온 지인과 시민들은 2년 만의 오프라인 레이스를 응원했다. 상반기 온라인 레이스 1만 8000명, 하반기 1만 명이 참가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참가 열기도 뜨거웠다.

대회가 끝난 후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꼼꼼히 준비된 서울마라톤", "행복한 추

억 만들고 갑니다", "내년 광화문 2만 명 사진 지옥 기대 할게요" 등 2년 8개월 만에 열린 오프라인 대회를 뒀 기쁨이 쏟아졌다. 내년 3월 동아마라톤을 기대하는 댓글도 빠지지 않았다.

2시간 14분 35초로 국내 남자 부문 1위를 차지한 박민호 선수는 "코로나로 훈련 여건이 쉽지 않았지만 서울마라톤이 열려 큰 동기 부여가 됐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마스터스 부문 풀코스에 참가해 4위에 입상한 박재영 씨는 "동아마

라톤이 열릴 날만 기다렸다. 훈련이 부족했지만 모든 게 완벽해 뛰는 내내 힘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방역 방침에 따라 비록 400여 명이 참가했지만 코로나 이후 국내 최초로 열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명가(名家)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팀원들이 많았다. 창간 102주년을 맞은 내년 3월에는 다시 4만 명의 마라톤 물결을 기대해본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박형준

동아비즈니스포럼2021 성황리 개최

사피 바칼 박사 등 세계적 혁신 전문가들 강연자로 참여



12월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아비즈니스포럼2021'에서 기조강연자인 사피 바칼(문샷 저자)이 강연하고 있다.

'도전의 시대, 최고의 기회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리셋 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동아비즈니스포럼2021'이 1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동아비즈니스포럼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지난해처럼 오프라인 참가자 수를 최소화하고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이 도입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포럼에는 베스트셀러 '룬샷(Loonshots)'의 저자이자 바이오테크 기업

신타제약의 창업자인 사피 바칼 박사를 비롯해 안드레이 하지우 미 보스턴대 교수, 스티브 블랭크 미 스탠퍼드대 교수, 마크 존슨 이노사이트 수석파트너, 앵커퓨리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 등 세계적인 혁신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했다. 조인트 세션으로 열린 '시빅데이터 포럼'에는 앨리스 유 팔란티어 기술 담당 임원이 방한해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바칼 박사는 강연에서 "리더는 세심한 손길로 구성원의 귀짜 아이디어를 육성하는 '정원사'가 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리더라면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내부 장벽에 부딪혀 사장되지 않도록 정원사가 식물들을 돌보듯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창업자들 사이에서 '린 스타트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블랭크 교수는 "책상 앞에서 세운 가설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라도 시장에 선보인 뒤 수정 및 개선을 반복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비즈니스포럼의 부대행사로 열린 '동아혁신리포럼2021'과 '시빅데이터포럼'의 열기도 뜨거웠다. 혁신리포럼에

서는 팬데믹 수혜주로 불리며 '사테크'와 '오픈 런' 현상을 빚고 있는 혁신 시장을 진단하고 NFT(대체불가토큰), 메타버스 등 최신 기술이 어떻게 혁신 산업과 연계돼 발전할 수 있을지 미래를 조명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메인 포럼에는 약 1200명이, 부대 행사에는 약 800명이 참여했다.

미래전략연구소 X2팀 조윤경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정서영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① 이름으로 글 서(書)자를 씁니다. 개명을 한 번 했는데, 이 글자만은 좋아서 바꾸지 않았습니다. 글 쓰는데 여전히 쉽지 않지만, 이름의 책임감으로 올바르게 쓰겠습니다.
② 여행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는 경주에 다녀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 좋은 기회로 많은 곳을 다닐 수 있길 바랍니다.



최미승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① 늘 같이 일하고 싶은 후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러닝과 등산을 꾸준히 하면서 체력 관리에 신경 쓰려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① 함께 고민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②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운동해서 체력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전혜진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① 초심을 잃지 않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인턴 때 하루하루 절실하고 치열하게 보냈던 마음을 잊지 않고 매 순간 진심으로 취재하고 싶습니다.
② 단풍이 절정인 요즘,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가지가 앙상해지기 전까지 알록달록한 풍경을 카메라에 많이 담고 싶습니다.



이승우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① 죽기 전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경험 해보는 것이 꿈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다 쌓아가야 할 경험이라 생각하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② 취업 장벽과 2030 세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환율을 공개하지 않는 채용형 인턴, 경력 있는 신입만 우대하는 등 일자리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이채완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① 자기소개서에 '세상의 해상도를 밝히는 기자'가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이 말을 되새기며 동아에서의 첫발을 떼겠습니다. 선배의 가르침을 경험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수습이 되겠습니다!
② 두 달간의 인턴 생활을 하며 감사했던 분들과 열심히 법약을 잡고 있습니다. 입사하고 나면 도움을 요청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기에 미리 비싼 밥을 대접하는 중입니다.



강다현 / 채널A
제작본부

① 열심히 모든 걸 소화시키는 유산균 같은 상큼톡톡 피디가 되겠습니다.
② 동기들의 재미난 발표를 들으면서, 다양한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김승혜 / 채널A
제작본부

① 깨알같은 즐거움을 포착하고 함께 나누는 PD가 되겠습니다.
② 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구나무를 잘 서고 싶습니다.



나예지 / 채널A
제작본부

① 씩씩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담백한 PD가 되겠습니다.
② 패션 코트와 부츠의 계절이 다가온 만큼, 다양한 스타일링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 채널A
제작본부

① 본업에 진심인 PD가 되겠습니다.
②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상암 주변 산책하기 좋은 길 추천받고 싶습니다.



장재민 / 채널A
제작본부

① 민고 맡길 수 있는 후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지구력이 약한 것 같아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상암 한 바퀴 뒤실 선배님들과 동기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최승욱 / 채널A
제작본부

① "Life is like ice cream, Enjoy it before it melts!" 어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본 문구처럼 저부터 먼저 즐기는 PD가 되겠습니다.
②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재미를 들여가고 있습니다. (어글리 달리 셔스) 강추 드립니다.



하해찬 / 채널A
제작본부

① 오래 꿈꿔온 일을 할 수 있게 돼 행복합니다! 꿈을 담은 캔버스를 다채롭게 채워나가는 PD가 되겠습니다.
② 좋아하는 가수가 곧 콘서트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보는 콘서트에서 정말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_+



조현서 / 채널A
드라마플러스본부

①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몰입감 있는 드라마를 만드는 PD가 되겠습니다!
② 핸드드립 커피에 관심이 생겨서 다양한 카페에 가서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고 집에서 직접 내려 마시고 있습니다. 상암에 있는 느낌 있는 카페 추천 부탁드립니다~



김민한 / 채널A
보도본부

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②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산책하면서 마주치는 강아지를 구경하거나 SNS에서 강아지 사진을 보는 게 취미입니다. (보더콜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김용성 / 채널A
보도본부

① 항상 발로 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채널A라는 이름에 걸맞는 기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②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요즘은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드는 것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민트초코 좋아합니다.)



김지윤 / 채널A
보도본부

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공부하는 노동자'가 꿈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침묵을 좋은 질문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② 인턴 때 서초서 형사에게서 맡은 짬은 비누향의 향수를 찾고 있습니다. 향에 조예 깊은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D



백승연 / 채널A
보도본부

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후배, 나의 영달보다 좋은 기사를 생각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② 추운 겨울을 어떻게 따뜻하게 보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기모 바지, 히트텍, 두꺼운 양말을 구비해주고 싶습니다. 방한템 추천 부탁드립니다.



서주희 / 채널A
보도본부

① '뚝뚝' 두드려서, 취재원의 마음을 '활짝' 여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② 얼마 전 12년만에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난로음식과 불명에 빠져 캠핑용품들 하나씩 모아보려고 합니다.



이혜주 / 채널A
보도본부

① 오래 꿈꿔온 일인만큼, 채널A의 캔버스에 수많은 목소리를 담아 제대로 전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② 아이폰을 떠나 8년만에 갤럭시와 친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케이스도 없고 오타도 많이 나지만 얼른 갤럭시 완전체가 되겠습니다. 얼른 자동 녹음된 선배들 목소리도 듣고 싶습니다ㅎㅎ



조민기 / 채널A
보도본부

①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병든고 굶은 우리 사회에 힘찬 심장박동이 울릴 수 있게 힘차게 압박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② 축구는 제 평생의 취미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돼 기자회견 축구대회가 재개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최승연 / 채널A
보도본부

① 갑갑 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② 할아버지와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관찰은 차박, 캠핑 장소 추천해주세요♡



변지은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세일즈팀

① 팀과 함께 앞장서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② 요즘 제일 큰 관심사는 제 강아지 '세리'입니다. 퇴근하면 반겨주는 세리를 보면 피로가 싹 풀립니다.



<금쪽같은 내새끼> 초록우산 어워드 수상

채널A를 대표하는 힐링 육아에능 프로그램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이하 금쪽같은 내새끼)가 11월 12일 열린 '초록우산 어워드'에서 두 개 부문을 수상했다. '초록우산 어워드'는 전국의 아동들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투표하는 아동 권리 시상식이다. <금쪽같은 내새끼>는 미디어 콘

텐츠 부문인 '내 인생 최고의 영상'에, 주요 출연자인 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인물 부문인 '우리들의 우상'에 각각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총 2783명의 아동들이 직접 투표해 선정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금쪽같은 내새끼>는 지난 2월에 여성신문이 주최한 제16회

'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 방송 콘텐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육아예능으로 자리잡은 <금쪽같은 내새끼>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편성전략본부 콘텐츠개발팀 김우준



'내 인생 최고의 영상', '우리들의 우상'에 각각 선정된 <금쪽같은 내새끼>와 오은영 박사